



▶▶▶ 단체소개

국내 에이즈 민간단체

국내 첫 에이즈 감염인의 발견 2년 뒤인 1987년 국립보건원에 에이즈센터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예방사업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제정되었고, 모든 헌혈액에 대한 에이즈 검사와 특정집단에 대한 의무검사도 시작하게 되었다. 그뒤 1989년에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에이즈 무료의명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의 에이즈 예방과 확산금지에 대한 노력이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설립되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에이즈 예방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 후 구세군과 대학적십자사에서도 에이즈 예방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다양한 감염인 단체들이 생겼다 사라지곤 했다. 90년대 초부터 에이즈 사업에 뛰어든 역사와 내실을 자랑하는 단체들과 이제 막 형성된 신생단체까지 국내에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에이즈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구세군 한국 HIV/AIDS대책팀
HIV/AIDS Care and Prevention Team The Salvation Army Korea Territory

www.aidscore.or.kr

구세군은 1995년부터 준비과정을 거친 후 1998년 12월 1일에 한국 구세군 HIV/AIDS 대책팀이 결성되었고 이어 1999년 1월부터 본격

적으로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0년 8월 1일 프론트라인 담당관이 임명되면서 보다 조직적인 사업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5명의 구세군 사관(복회사)들이 대책팀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실무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이 일에 헌신하고 있다.

지역사회 접근방법(Community approach)을 통해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복지, 인권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에이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변화에 힘쓸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에이즈 예방과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예방활동 및 감염인 복지를 위해 의료전문인, 진린 사회사업가, 복회사가 팀으로 활동함으로써 의료적 지지, 정서적 지지, 심리상담, 영적 지지 그리고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02)733-3025



대한에이즈예방협회

www.aids.or.kr

1993년에 설립된 협회는 에이즈의 예방 및 퇴치와 감염인 및 그 가족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나아가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협회는 크게 에이즈 담당요원 훈련지원 사업과 감염인 복지재활사업, 성병에이즈 상담소 운영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담당요원 훈련지원 사업은 에이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인 보건의료원, 학교 보건교사, 군대내 성교육지도자, 교도소내 보건요원 등에 대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통해 전국민에게 에이즈 교육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는 사업이다.

복지재활사업은 감염인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건강한 감염인이 어려움에 처한 감염인을 돕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는 건강한 감염인들은 동료상담원, 에이즈 환자 간병인, 전문 에이즈 강사, 전문 상담원, 홈페이지요원으로 양성하여 이들을 관련 사업에 적극 투입하여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또한 뉴이 건강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국민층을 위해서는 직접 감염인 기성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고, 정서적 위안과 안정을 제공하기도 하고 숙식이 가능한 요양취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회는 에이즈 무료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대구, 울산 3곳에서 에이즈 무료익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02)2675 4114





한국에이즈퇴치연맹
Korea Federation for AIDS Prevention

<http://new.kaids.or.kr>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인류의 존엄성 인식에 기반한 헌신과 봉사를 바탕으로,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조사연구, 상담, 그리고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맹은 1993년 에이즈예방 민간단체로 출범하여, 현재 시흥특별시 지회를 비롯하여 전국에 12개 지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업별로는 에이즈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사업, 에이즈 상담 및 검사사업, 각종 연구조사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내국인 에이즈 심각성 고취와 콘돔사용 촉진을 위해 광고(TV, 신문, 옥외광고 등)와 콘서트, 레트리분페스티벌, 세계에이즈의 날, 광고광고전 등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에이즈전문상담원들이 전화 상담(1588-2437), 인터넷상담, 면접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상별로 동성애자, 성매매여성 및 성매수자, 외국인 청소년, 군인, 해외여행객 등에게 동료교육, 집단교육, 콘돔게이스 등 홍보품 개발 보급, 거리캠페인, 콘돔 보급사업 등 에이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동성애자, 외국인에 대해 특화된 상담 및 검사소 운영을 하고 있다. ☎ 02)747-4071



한국에이즈예방재단

www.kfap.or.kr (2013. 2월 20일 예정)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및 퇴치와 감염인 복지 증진을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은 2001년 12월 1일에 창립총

회를 거쳐 2003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계몽 및 홍보, 교육훈련, 에이즈 감염인 치료 및 복지, 에이즈 환자를 위한 로스피스, 에이즈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협력이다. ☎ 02)732-1251